

## 환경오염, 어디까지 왔나



조 일 성

우리의 자연과 생활환경은 옛날에는 “금수강산”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표현 그대로 매우 아름답고 깨끗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의 환경은 차츰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부터 비롯된 공업화정책이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낳고, 그로써 온갖 오염 물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자 대기와 물, 토양, 바다 등 우리의 환경은 건잡을 수 없이 더럽혀지고 파괴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원인을 손꼽는다면 낮은 문제의식과 지나친 이기주의를 빼놓을 수 없다.

’70년대 초 중화학공업으로 폭발적인 환경오염을 낳아 생지옥을 방불케 한 일본의 처참한 각종 공해병을 보았으면서도 아직

도 사람들은 환경오염의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은 환경오염이 계속 심각해 지고 있는 요즘에도 낮은 문제의식과 지나친 이기주의를 자성하지 않고 유독한 산업폐수를 처리하지도 않은 채 물레 하천에다 흘러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시민들 중에는 1년에 한번 하는 수세식 변소의 정화조 청소를 게을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 탱크를 하수구에다 직결시켜 생분뇨를 공공수역에다 흘러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마냥 안타깝기만 하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작은 일들이 모여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우리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각 분류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공장 또는 빌딩과 같은 고정 발생원과, 자동차와 같은 이동발생원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 대기 오염 물질에는 유황산화물(SO<sub>2</sub>)을 비롯하여 질소산화물(NO),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매연, 먼지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육안으로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 추세는 최근 저유황유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최근 차로 승격됨)이 발족한 지난 '80년 이래로 아직 한번도 환경 기준치(0.05ppm)을 밑돈 적이 없다.

다음은 수질 오염.

수질 오염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및 농축산폐수에 의해 발생한다. 이들 하수와 폐수에는 분해성 유기물—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과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화합물,

인산염 등의 영양 염류 및 맹독한 각종 중금속이 포함된다. 이 물질들이 강이나 바다에 다량 유입하면 물이 썩거나 이른바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 수질이 악화된다.

특히 중금속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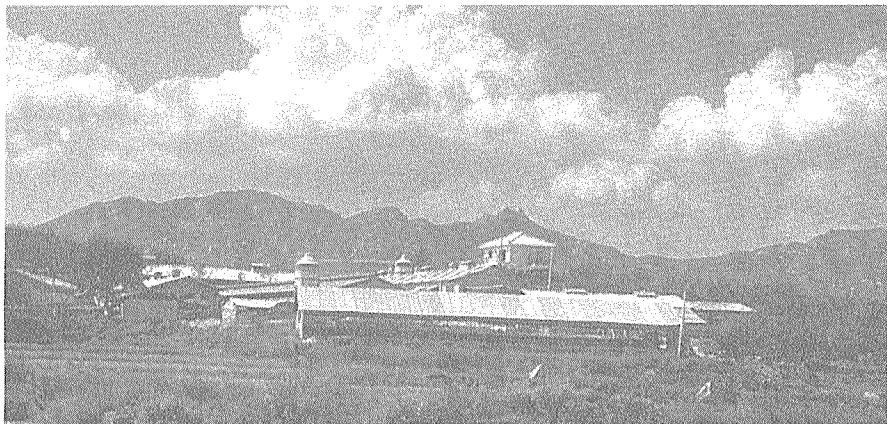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 처리율 25%가 말해 주듯이, 수질 문제는 너무 등한 시되어 왔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깊어져 있다.

기타 환경오염.

소음과 진동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감각 공해로써 피해, 진정 건수가 가장 많은 공해이다. 그 발생원은 다양하여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나는 진동과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에서는 나는 소음, 진동, 피아노, 전축, 개짖는 소리 등의 생활 소음이 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작은 일들이 모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토양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오염되면 건강과 행복과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소음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간에 이 '원치않음'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 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농산물 증산을 위해 쓰이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수질오염도 문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쓰레기 문제. 쓰레기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하루 7만3천톤('88)이고 이중 43%가 연탄재라고 한다. 또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연간 1,530만톤('87년)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에는 맹독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토양의 혜택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오염되면 건강과 행복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공기와 물과 토양의 중요성을 너무나 경시해 왔다. 그저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편리하게 사는 '풍요와 편리'에 대한 욕망을 상당히 충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진행된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사람들이 각종 피해를 입고, 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풍요한 물질 생활에 계속 집착하면 환경의 오염, 파괴는 더욱 광범하게 확산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환경오염의 예방과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모든 어른들은 공기와 물과 초목을 오손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자손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며, 지구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필자=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홍보부장〉